

광주 주택분양 5개월 연속 '멈춤'...전월세 거래도 위축

4781건 전년동월비 7.8%↓
매매거래도 10% 이상 감소
준공·인허가도 전국 최저
준공후미분양 물량은 줄어

광주지역 공동주택 분양이 5개월째 멈췄다. 또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는 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봄 성수기를 앞두고도 거래 부진이 이어졌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17건으로 전월(1578건) 대비 10.2% 감소하고 전년 동월(1585건) 대비해서도 10.6% 감소했다.

전남은 1725건으로 전년 동월(1678건) 대비 2.8% 늘었지만 전월(1986건) 대비로는 13.1%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줄었는데 광주는 4781건, 전남은 4262건에 그쳤다. 광주는 전월(4781건) 대비 1.8%, 전년 동월(5185건) 대비 7.8% 감소했고, 전남은 전월(4567건) 대비 6.7%, 전년 동월(5416건) 대비 21.3% 줄었다.

공급 지표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광주지역 분양(공동주택 기준)은 지난해 9월 571건 이후 5개월째 0건으로 실적이 없었다. 전남도 지난해 12월 305건 이후 1월과 2월 모두

0건이었다. 준공과 인허가도 광주가 전국 최저였다. 준공은 11호, 인허가는 2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98.5%, 99.4% 급감했다.

전남 준공은 158호로 전년 동월(2015호) 대비 92.2% 감소했다. 다만, 전남 인허가는 780호로 전년 동월(156호) 대비 400.0% 늘었다. 착공도 광주 5호, 전남 101호에 그쳐 각각 86.5%, 14.4% 줄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는 광주 1319호, 전남 2569호로 전월 대비 각각 52호(-3.8%), 99호(-3.7%) 감소했다.

다행인 점은 같은 기간 약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함께 감소한 것이다. 광주가 전월대비 38호(-5.0%) 줄어든 720호이고, 전

남은 전월대비 57호(2.9%) 감소한 1926호였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이 약 14년 만에 3만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분양은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호로 전월보다 5.9% (1752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3만호를 넘은 것은 2012년 3월(3만438호) 이후 처음이다.

준공 후 미분양의 86.3% (2만7015호)가 지방에 있는 주택이다.

대구가 4296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629호), 경북(3174호), 부산(3136호), 충남(2574호), 경기(2359호), 제주(2213호) 등 순이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36.1% (1140호) 늘어 증가폭이 컸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협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중동발 유류난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농협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 “중동발 유류난 대응”

농협 전남본부, 정기총회서 공동체계 구축 등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협주유소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중동발 유류난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회원 가입 보고 △2025년 사업결산 심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치예산 심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동발 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 지역 농

협주유소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류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동심협력'의 자세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형성한 것이다.

이윤리 본부총괄은 영농철을 맞아 면세유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전 유종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정수 회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조합장들이 지혜를 모아 유류사업의 난관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조합장들께 감사드리다”며 “전남본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협주유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AI 가전에 더 똑똑해진 '빅스비' 적용 삼성전자, 생생형 AI 퍼플렉시티 결합

삼성전자가 한층 고도화된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2026년형 가전 신제품에 적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일상 대화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추론과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은 2026년형 패밀리허브와 에어컨, 로봇청소기, 정수기, 7형 스크린이 탑재된 세탁 가전 신제품에 적용됐다.

따라서 사용자가 에어컨에 “에어컨 바람 안 나오게 꺼줘”라고 말하면 ‘무풍’으로 냉방을 시작하고, “로봇청소기, 조용하게 청소해”라고 말하면 로봇청소기가 ‘저소음 모드’로 작동한다.

세탁기도 “청바지 빨 건데 맞는 코스로 설정해 줘”라고 말하면 청바지에 적합한 ‘데님 코스’로 설정되는 식이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손쉽게 가전제품 ‘자동화 설정’도 할 수 있다. ‘자동화 설정’은 특정 시간이나 요일, 날씨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이윤리 삼성전자는 빅스비에 생생형 AI 서비스 퍼플렉시티를 결합해 일상생활 속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오픈 Q&A’ 기능을 새롭게 지원한다.

‘오픈 Q&A’는 사용자가 방장고나 에어컨 등 AI 가전에 자유롭게 질문하면 정확하게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은행은 지난 30일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지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5000만원 출연

총 42억 규모 공급...업체당 최대 2000만원·5.0% 이차보전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지난 30일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지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5000만원을 별도로 출연했다.

광주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4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서구는 1년간 최대 5.0% (고신용자 4.0%, 중저신용자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기간

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은 서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 7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25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왔다.

김지훈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숨통이 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 지원

1000억원 증액...2년간 연 3.0~3.5% 이차보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1000억원으로 예정됐던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신보는 전남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더 폭넓은 보증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으며 최근 추경을 통해 업체당 2년간 연 3.0~3.5%의 이자를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창업자금 280억원, 경영안정자금 172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창업 2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중 3.5%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이자 중 3.0%를 지원한다.

총지원 규모는 2분기 685억원, 3분기 490억원, 4분기 49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전남신보는 올해 신규 보증을 전년 대

비 1000억원 증액한 55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 여파로 인해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전남도 위기기업 긴급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동성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마이너스통장 보증'도 4월 시행 예정이다.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남신보 대표번호(061-729-0600)로 연락 후 지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포용 금융을 실천할 것이고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주농협, 3일까지 농자재 할인·경품행사

농주농협은 농업경영비 절감과 영농철 핵심 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본·지점에서 '농자재 할인 및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농약, 일반 자재, 사료, 소형 농기계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며,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모자·팔토시·장갑 등 사은품과 함께 최대 10매의 경품 응모권이 제공된다.

경품 행사도 마련됐다. 1등 엔진분무기를 비롯해 총 50여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은 다음달 3일 오후 농주농협 자체 센터 앞에서 비대면 추첨으로 진행된다.

조종진 농주농협 조합장은 “자재센터 개장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가 조합원 실익 증진과 영농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주농협은 농업경영비 절감과 영농철 핵심 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본·지점에서 '농자재 할인 및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농협재단, 농업인 관절수술비 지원사업 추진

내달 17일까지 접수...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농협재단은 관절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관절수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반복되는 신체 노동으로 관절질환 위험이 높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총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관절수술과 관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절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 권유

를 받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전국 지역농·축협을 통해 접수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협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